2026. 5. 18

금융 Weekly Insight

금융사 실적 시즌 종료 – 본질적 비교우위 요인 탐색의 시간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 리서치센터 금융/소비재팀
2026년 5월 셋째 주

김재우 팀장, Senior Analyst jaewoo.kim@samsung.com
정민기 Analyst mingi.jeong@samsung.com
윤희재 Research Associate heejae23.yoon@samsung.com

- KOSPI 지수 보합인 가운데, 은행, 증권은 각각 4.4%, 10.5% 하락. 보험 업종만 5.5% 상승 기록.
- 1분기 실적을 발표한 보험업종은 1) 우려 대비 양호한 보험손익, 2) 자본시장 호조를 반영한 투자 부문 서프라이즈 등으로 양호. 증권업종은 반도체주 중심 증시 변동성 확대로 부진하였으며, 높은 증시 연동성이 지속되고 있음(ex. 직전 주간 수익률 +14%).
- 실적 발표 후 주가 소강 상태가 예상되는 가운데, 단기 실적 모멘텀보다는 본질적 비교우위 (1. 비은행 다각화로 수익성 강화, 2. 머니무브 관점에서 브로커리지 경쟁력 확보, 3. 보험 손익 관리 관점에서 우위 등)에 기반한 종목 선별이 유리한 국면으로 판단.

금융 Overview

- 은행 – 가격 기능 훼손 우려 완화 위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 은행주는 4.4% 하락. 매크로 리스크는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포용금융 강화에 대한 이슈가 지속되며 투자심리에 부담으로 작용. 지난주 금융위의 ELS 과징금 완화 가능성 관련 보도와 더불어 2Q 중 대출 및 금리 등 은행 이자이익에 우호적 환경이 이어지고 있지만, 보다 큰 그림에서의 리스크가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 물론, 포용금융 규모 상 은행 실적 영향은 제한적 판단. 그러나, 큰 틀에서 시장 가격 형성 기능에 대한 인위적인 변화가 가해질 경우, 이는 뜻하지 않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의 발현되는 시점과 장소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투자심리에 부담으로 작용 가능. 일례로, 과거 미국 은행들에 대한 자본비율 규제 강화가 사모신용 성장 및 부실로 이어진 점을 고려 필요. 물론, 시장의 기능에 모든 것을 맡기는 방임주의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적정 수준의 시장 개입은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 다만, 시장 기능에 대한 조정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할 때, 보다 심도 있고 세심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
- 증권 – 실적 시즌 종료로 차익실현 니즈 확대: 증권 업종 주가는 10.5% 하락하며 KOSPI를 크게 언더퍼폼. 직전 주(5월 둘째 주) 주간 수익률이 +14%를 기록했던 만큼, 높은 주가 변동성을 시현하고 있는 상황. 이는 1) 주중 반도체 주 중심 주가 변동성 확대에 따른 증시 변동성 확대와 더불어, 2) 실적 시즌 종료에 따른 증권업종 차익실현 니즈가 집중된 데 따른 것으로 판단. 한편, 한국금융지주가 실적 발표 이후 주가 상승세가 타 증권사 대비 두드러졌는데, 특정 자산에 편중되지 않은 전 부문에 걸친 이익 호조가 시장 측면에서 긍정적 포인트로 해석된 데 기인. 5월 들어 일평균거래대금은 100조원 대를 상회하고 있으며(vs. 1분기 66조원), (증시 중립을 가정 시) 7~8월 실적 시즌 근접할수록 다시 기대감이 확대될 수 있을 전망.
- 보험 – 오랜만의 주가 상승: 보험 업종은 w-w 5.5% 상승하며, KOSPI를 아웃퍼폼. 특히, 삼성화재(+11.0%), 한화생명(+12.3%), 현대해상(+7.4%) 등 기존 주가 상승세가 더뎠던(최근 한달 기준) 종목들의 저가 매수세가 확연하였음. 1분기 실적 발표가 우려 대비 안정화된 가운데 (보험손익 부진하였으나 이는 주가에 기반영, 금리 상승에 따른 투자손익 부진이 예상되었으나, 증시 등 상승으로 만회), 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른 방어주 성격 보험주 수급 수요가 일부 확대된 영향으로 판단. 1분기 수익성 측면에서 회사별 차이가 관찰된 만큼, 향후 관건은 매출 속도 조절, 과정 관리 등에 따른 실제 예실차 손익 축소 여부가 될 것으로 판단.

1.1 지난주 주요 뉴스 점검

Sector	News	Implication
은행	**(5/13) 기업은행 – 신용등급 아닌 대출 금액 따라 금리 차등 검토** – 기업은행은 신용등급이 아닌 대출금액에 따라 금리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신용점수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높은 금리를 책정하는 현재 방식이 합리적인지 검토하겠다는 것. 가령, 저신용자와 고신용자가 3년 동안 똑같이 성실하게 상환했다면, 저신용자가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한 셈이기 때문. – 소액대출 감면 범위 확대도 검토 중. 현재 최대 60% 수준인 상각비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고민 중.	**포용금융 강화 기조에 대한 기업은행의 고민 – 다만, 기업은행 입장에서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 판단:** 금융당국이 포용금융 강화에 대한 금융권의 변화를 강조한 가운데, 기업은행도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제안들을 검토하는 중의 결과물이라 판단. 다만, 기업은행의 관련 부담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기업은행은 개인보다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 **금액에 따른 금리 차등 아이디어 –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고민:** 금액에 따른 금리 차등과 관련된 취지는 충분히 이해 가능하지만, 경제적이지 않다는 관점에서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방안이라 생각. 상대적으로 소액 여신일수록 관리 비용 등이 더 많이 소요되고, 중저신용 차주에 대한 적정 마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대손 리스크까지 부담할 경우, 은행의 수익성을 훼손할 수 있음. 반대로 관련 비용 부담을 우량 차주에게 전가할 경우, 이는 오히려 우량 차주의 타행으로의 이탈로 이어져 은행의 수익 기반 약화를 야기 가능. 이는 유통업에서도 다량으로 구매할 경우, 가격을 더 많이 할인해주는 것과 유사한 논리임.
	(5/13) 금융위 금감원에 은행 ELS 적용 법리 등 보완 요청 – 과징금 과도하다 입장 – 금융위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감원이 책정한 1.4조원의 과징금에 대해 제재 관련 법리를 재검토하라고 금감원에 전달하였음. 이와 같이 금융위가 금감원의 제재안을 반려하는 것은 이례적. 금융위 회의에서는 과징금 금액이 과도하고 책정 근거와 과정이 일부 부실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보도. – 이에 업계에서는 ELS 과징금이 대폭 감소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 은행권이 자율 배상을 진행해 온 만큼 과징금이 확정되면 소송이 연이어 제기될 수 있기 때문. 대규모 과징금이 금융사의 생산, 포용적 금융 여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도 제기.	**ELS 과징금 축소 기대 긍정적:** 과징금 최종 결정 권한을 지닌 금융위가 재검토를 요구한 만큼, 사실상 과징금 축소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 이는 은행들의 자본 부담을 완화한다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가능. **다만, 여전히 실제 과징금 규모가 관건:** 다만, 여전히 실제 과징금 규모는 여전히 관건. 3대 금융지주의 경우, 기존에 부과된 과징금을 기준으로 현재 충당금 적립률은 54~80% 수준. 즉, 현재 적립된 충당금 규모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여전히 은행들은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불가피. 물론, 이미 선제적 충당금 적립으로 영향은 그만큼 적어질 전망이지만, 위험가중자산 증가 등에 따른 부담은 과징금에 비례하는 만큼, 일정 수준의 부담이 우려. 즉, 합리적 수준의 과징금 부과가 향후 관건이 될 전망.
	(5/13) 카드사 수익성 악화 지속 – 수수료 감소에 조달비용 상승까지 – 카드사 조달의 핵심인 여전채 금리가 급등 중. 5월 12일 기준 3년 만기 여전채 금리는 4.2%로 2월 말 3.6%대비 0.6%p가량 상승. 이는 시장금리 상승에 기인. – 현재 만기를 앞둔 카드사 여전채 평균 금리가 연 3%대 중반인 점을 감안하면, 차환 발행 과정에서 이자비용 증가가 불가피한 것. – 카드사 관계자는 마땅한 신규 수익원이 없는 상황에서 조달 금리마저 뛰며 당분간 보수적 유동성 관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언급.	**카드사 구조적 수익성 악화 기조 심화 중:** 수수료 감소 및 조달비용 상승은 물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강화 기조는 카드사들의 대출 사업에도 부담 요인. 즉, 카드사들은 통상적으로 카드 대출 부문을 통해 결제 부문의 비용 부담을 완충하는 구조를 지니는데, 이마저도 현 시점에서는 쉽지 않은 것. 더 나아가, 포용금융이 보다 강화될 경우, 카드사들의 카드 대출 금리에도 부담으로 작용 가능. **새로운 결제 수단의 도입에 대한 우려까지:** 더 나아가, 스테이블 코인 등 기존의 결제 수단을 대체하는 신규 결제 수단의 도입에 대한 우려도 상존. 물론,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를 모두 대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다만, B2B 결제 혹은 펌뱅킹 등에서 새로운 결제 수단이 기존의 카드 결제를 대체할 경우, 이는 카드사의 수익원 감소 혹은 가격 경쟁 심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고려 필요.

(다음 페이지에 계속)

Sector	News	Implication
은행	**(5/15) 암호화폐 시장 거래대금 감소 - 다만, 해외는 ETF는 증가** - 국내 5개 암호화폐거래소의 1Q 누적거래대금은 332조원으로 56.8% y-y 감소. 특히, 4월 거래대금은 550.9억 달러로 23년 9월 이후 최저치 기록. 이는 25년 12월대비 85% 감소한 수준. 예치금도 원화 기준 10.7조원에서 7.8조원으로 27.1% 감소. - 미국 역시 개인 투자자 중심 거래 둔화 흐름이 뚜렷. 코인베이스의 올해 1Q 현물 거래대금은 51.2% y-y 감소. 고객 보관 자산 규모도 같은 기간 27% 감소. - 이는 증시 활황에 기인.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코인으로 돌아오지 않고 기술주나 변동성이 큰 주식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 - 대신, 미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한 기관 자금 유입은 지속. 실제로 최근 6주동안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는 34억 달러가 순 유입되었음. 즉, 시장의 붕괴라기보다는 개인 투자자 거래 둔화 속 시장 구조가 기관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으로 평가.	**Flight-to-yield현상 지속 - 더 큰 수익성을 찾아 가는 스마트 개인 투자자:** 스마트한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 보다 높은 수익률을 쫓아 이동하는 모습은 지속될 전망. 현 시점에서 국내 증시는 여전히 정부 정책 기대와 더불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등이 남아 있는 만큼, 이와 같은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여지가 높다고 판단. **국내 암호화폐 시장 - 현물 ETF 도입이 관건:** 한편,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ETF를 통한 기관 중심 시장 구조 재편은 흥미로운 지점. 한국은 여전히 해당 사안의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미국과는 다른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 하지만, 반대로 우리 또한 코인 ETF가 도입될 경우, 현재 개인 투자자 중심 거래소는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는 것은 물론, 보다 안정적인 유동성 흐름 또한 기대 가능할 것으로 전망.
	(5/15) 불장에 증시로 - 상호금융서 15조원 이탈 - 한국은행에 따르면 1Q 상호금융권 수신잔액은 915조원으로 15조원 q-q 감소. 업계에서는 증시 활황에 따른 자금 이탈을 이유로 판단. - 이에 상호금융권은 수신 감소를 막기 위해 금리 경쟁에 돌입. 3.8~4%에 달하는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을 출시.	**은행과 다른 2금융권 수신 시장 - 결국 기업비중:** 은행이 과거와 달리 머니무브 속 예금 이탈이 적은 이유는 기업 수신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반면,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수신은 기업보다 보다 높은 금리를 쫓는 개인들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추정. 이에 지금과 같은 머니무브 환경 하에서는 상대적으로 자금 이탈이 더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 **관건은 운용 수익률:** 물론, 위험자산에 대한 수요만큼,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도 분명 존재. 이에 보다 높은 금리를 통해 이를 방어하려는 수단은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평가. 다만, 관건은 운용 수익률. 결국 은행보다 1%p 이상의 수신 금리를 제공한다는 것은 그 이상의 수익을 거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 시점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성장률 하락과 더불어 포용 금융 강화 기조는 이를 제한하는 요인이기 때문.
	(5/15) 하나금융이 두나무에 1조원 투자, 주요 주주로 등극 - 하나금융 산하 하나은행은 15일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한 두나무 주식을 1조원에 인수하는 안건을 의결. 이번 거래로 하나은행은 두나무 지분 6.55%를 확보, 4대 주주로 등극. - 하나금융은 금융권 생태계의 변화 속에서 하나금융이 그 흐름과 변화를 주도하는 차원에서의 투자라 언급. 즉, 디지털 자산을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보고 선점하겠다는 판단. 가령,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이 은행의 결제, 외환, WM등 기존 사업과 연결될 수 있고, 증권사의 STO, 디지털 자산 수탁, 카드사 결제 인프라, 해외 금융 서비스 등과도 시너지를 기대. - 한편, 업비트 실명 계좌 제휴 변화 가능성도 관심사. 이번 지분 투자가 곧바로 하나은행의 실명 계좌 제공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협력 확대 관측이 제기.	**그럼에도 하락한 주가 - 굳이 이유를 찾자면 낮은 지분율, 수익화 시점 및 수익성에 대한 고민:** 은행들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제휴 등을 통한 영역 확대 및 선점은 분명 긍정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금융 주가는 당일 5% 이상 하락. 물론, 이에 대한 이유는 당일 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은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것. 다만, 동사의 투자와 굳이 관련성을 찾고자 한다면, 1조원 투자에 따른 계산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일 것. 여전히 디지털자산 관련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이후 네이버와 두나무 합병 시 하나금융의 보유 지분율은 5%로 소폭 낮아지는 것은 물론, 주주 순위도 하락할 전망이기 때문. 즉, 대주주가 아닌 상황에서 배타적인 입지를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 경우 1조원 투자에 따른 수익화 시점 및 수익성을 현재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 **미국 대형 은행들은 자체 예금 토큰을 통한 B2B 결제에 초점:** 미국의 경우, 지난 해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로 인해 대형 은행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음. 물론, 이들은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혹은 거래소 지분 인수와 같은 방식보다는 B2B 결제에 보다 집중, 예금 토큰의 SWIFT 대체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

(다음 페이지에 계속)

Sector	News	Implication
은행	**(5/15) 4월 코픽스 8bp 상승** -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는 2.89%로 8bp m-m 상승. 잔액기준 코픽스 금리도 2.87%로 2bp 상승.	**시중금리 상승으로 코픽스 금리도 상승:** 코픽스 금리는 은행 조달의 가중평균 금리. 즉, 최근 시중금리 상승으로 인해 코픽스 금리도 상승한 것으로 판단. **코픽스 금리 추가 상승도 가능:** 이와 같은 상승세는 보다 더 이어질 수 있을 전망. 시중금리가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2금융권을 중심으로 머니무브에 대응, 조달금리를 높이고 있고, 최근 고유가 환경의 지속으로 인해 물가 상승 압력 또한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금리 하락보다는 상승에 대한 무게가 더 크게 실리고 있기 때문. **변동금리부 가계대출 금리 상승 - 은행 NIM에 긍정적 기여:**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 자체는 1.5% 이하로 낮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 변동금리부 가계대출 잔액에 대한 금리는 코픽스를 반영, 시차를 두고 상승하는 만큼, 이에 따른 NIM 개선 효과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5/17) 4월 금융시장동향 - 기업대출 중심 성장 지속 - 한국은행이 4월 금융시장동향을 발표. 가계대출은 주담대 중심 2.1조원 m-m 증가 (+0.2%). 주담대 반등은 주택거래 증가 및 중도금 납부 수요 확대에 기인. 반면, 가계 일반대출은 주식 매도 통한 상환으로 감소. - 기업대출은 증가 폭이 10.7조원으로 전월 7.8조원대비 확대. 증가율은 0.8% m-m 기록. 중소기업대출이 5.7조원, 대기업은 5.0조원 증가했는데, 부가가치세 납부 자금 수요, 배당금 지급, 회사채 상환 등에 기인. - 수신은 수시입출식이 18.8조원 감소했는데, 이는 기업들의 부가가치세 및 배당금 납부에 기인. 반면, 정기예금은 법인자금 유치 등으로 4.7조원 증가.	**기업대출 중심 증가세 지속:** 가계는 소폭 반등했으나, 여전히 은행 대출은 기업대출 중심 증가세가 지속. 특히, 대기업 대출 순증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대출 성장세 지속 - 은행 이자이익에 긍정적:** 대출 성장세 지속과 더불어 NIM에 대한 우호적 환경으로 인해 은행의 이자이익 증가세는 이어질 전망. 이는 매크로 리스크 확대에 따른 대손비용 부담이 증가하더라도 완충시킬 수 있는 역량이 커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 **향후 관건은 중소기업으로의 대출 낙수효과:** 은행들의 생산적 금융 강화 기조 속에서 여전히 기업대출의 큰 축은 대기업. 이에 향후 관건은 중소기업들의 생산적 금융 강화에 따른 수혜 확인. 즉, 중소기업으로의 양질의 대출 수요 확대와 중소기업들의 현금흐름 및 수익성 개선에 따른 은행의 이자이익 및 충당금의 개선이 관건이 될 전망.
증권	**(5/13) 저가 합병 막는다…공정가액 도입 자본시장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상장사 합병 시 합병가액을 주가뿐 아니라 자산가치·수익가치를 종합 반영한 '공정가액'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5월 12일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후 14일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 합병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에도 동일한 공정가액 기준 적용. 일부 상장사 사례 등에서 저평가 주가 기반 합병으로 인한 소액주주 피해 반복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취지. 손해배상 책임 조항은 기업 합병 과도 제약 우려로 제외.	**증시 활성화 정책 기조 지속:** 공정가액 기준 합병가액 도입은 상장사의 저평가 주가를 활용한 지배주주 유리 합병 관행에 제동, 소액주주 보호 및 주주가치 제고 측면에서 자본시장 구조적 개선 요인으로 기대. 또한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신뢰도 제고에 기여, 증시 재평가 흐름을 중장기적으로 지지하는 요인으로 평가.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합병가액 산정과 외부 평가 과정에서 분쟁 가능성이 확대되고 M&A 절차가 복잡해져 단기적으로 기업 구조재편 활동의 위축 우려도 상존.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의 공정가액 적용은 합병 반대 주주의 권익 강화로 직결, 향후 자본 재편 과정에서 회사-주주 간 협상력 변화 양상 점검 필요.
보험	**(5/14) 팔아도, 안 팔아도 고민…5세대 실손 마주한 보험사의 복잡한 셈법** 5월 6일 출시된 5세대 실손보험을 두고 보험사들이 '판매 딜레마'에 직면. 판매를 적극 추진할 경우 구세대(3·4세대) 가입자의 빠른 전환으로 기존 보험료 수입이 감소하고, 반대로 판매를 꺼릴 경우 시장 점유율 손실 우려가 상존. 5세대는 비중증 보장 대폭 축소로 손해율은 낮으나, 보험료도 대폭 낮아 수익성 확보가 불분명. GA 채널에서도 낮은 수수료 구조로 인해 모집 유인이 약한 상황이 지속. 계약재매입(구세대 전환 시 3년 50% 할인) 제도 하반기 시행 이전까지 전환 수요가 제한적.	**단기 수익성 vs 장기 손해율 관리 트레이드오프:** 계약재매입 제도가 하반기 시행되기 전까지 대규모 전환 유인이 없는 상황에서 보험사들의 5세대 신계약 성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아, 단기 신계약 CSM 기여도는 낮은 수준. GA 채널의 판매 유인 부족은 보험사의 직판·온라인 채널 강화 필요성을 가속화, 채널 전략 재편에 따른 판관비 구조 변화를 모니터링 필요. 하반기 계약재매입 시행 이후 구세대 가입자의 전환 속도가 보험사 손해율 개선 폭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 전환 유인 설계의 실효성에 주목.
	(5/12) 한의업계 반발에 차보험 '8주룰' 상반기 도입 불투명…차보험 적자 구조 장기화 자동차보험 한방 치료 지급 기간을 사고 후 8주로 제한하는 '8주룰'이 한의업계 강한 반발로 상반기 도입이 사실상 불가 판정. 과잉 진료 억제를 통한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 수단으로 당국이 추진했으나, 한의사협회 등 집단 반발에 합의점 미도출. 이미 1Q26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5~86%대(손익분기 80% 대폭 상회) 수준으로 집계된 가운데, 손해율 개선의 핵심 정책 도구 지연으로 적자 구조 장기화 우려 가중. '기약없이 미뤄지는 8주룰' 기조 속에서 보험료 부담이 오히려 가입자에게 전가될 위험성도 제기.	**자동차보험 손해율 정상화 경로 최소 하반기 이후로 지연:** 도수치료 관리급여(7월 시행) (긍정), 8주룰 (긍정), 5부제 할인특약(부정)이 얽힌 복합적 정책 불확실성이 손보주 자동차보험 관련 투자심리의 구조적 억제 요인으로 지속. 보험료 인상 사이클 가속 가능성이 있으나, 정책 할인(5부제) 및 의료계 반발(8주룰) 간 엇박자가 요율 조정 여지를 제한하는 구조. 8주룰 도입 최종 일정 확정 및 의료계 협의 진전 상황이 하반기 손보주 리레이팅의 핵심 트리거로 작동할 전망.

자료: 언론 보도, 삼성증권

1. 2 금주의 주요 Event check

Sector	국내	해외
2026-05-18 (월)		미국 5월 NAHB 주택시장지수
		중국 4월 주택가격지수
		중국 4월 실업률
		중국 4월 산업생산
		중국 4월 고정자산투자
		중국 4월 소매판매
		중국 4월 외국인 직접 투자
2026-05-19 (화)	한일 정상회담 개최	미국 4월 잠정주택판매지수
	1분기 가계신용(잠정)	미국 주간 ADP취업자 변동
		일본 3월 산업생산(수정치)
		일본 3월 3차산업지수
		일본 1분기 GDP(예비치)
2026-05-20 (수)	1분기 지역경제동향	미국 FOMC 의사록 공개
		미국 주간 MBA 모기지 신청건수
		미국 주간 원유재고
		미국 20년 만기 국채 입찰
		유로존 ECB 비통화정책회의
		유로존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확정치
		독일 4월 생산자물가지수(PPI)
		영국 4월 생산자물가지수(PPI)·소비자물가지수(CPI)
		중국 5월 대출우대금리(LPR) 발표
2026-05-21 (목)	4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	미국 4월 주택착공, 건축허가
		미국 5월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지수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미국 5월 서비스업·제조업·합성 PMI 예비치
		미국 5월 캔자스 연준 제조업지수
		유로존 5월 서비스업·제조업·합성 PMI 예비치
		유로존 3월 경상수지
		유로존 5월 소비자신뢰지수
		독일 5월 서비스업·제조업·합성 PMI 예비치
		영국 5월 CIPS/S&P 글로벌 서비스업·제조업·합성 PMI 예비치
		일본 5월 서비스업·제조업 PMI 예비치
		일본 3월 핵심기계류수주
2026-05-22 (금)	금융위원회,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출시	미국 5월 미시건대 소비심리 평가지수 확정치
	5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미국 주간 원유 채굴장비 수
		독일 1분기 국내총생산(GDP) 확정치
		독일 5월 IFO 기업환경지수
		독일 6월 GFK 소비자신뢰지수
		영국 5월 GFK 소비자신뢰지수
		영국 4월 소매판매
		영국 4월 공공부문 순차입/순상환
		일본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자료: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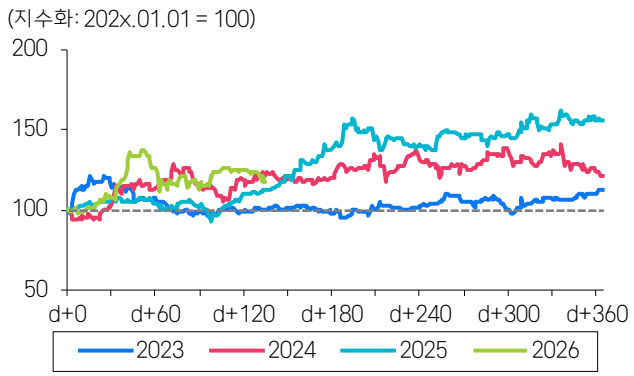
1.3 주가 Performance

업종	종목	시가총액	주가	2026E					주가 Performance (%)			
				주주 환원율	PBR	ROE	PER	EPS Growth				
		(조원)	(원)	(%)	(배)	(%)	(배)	(%)	1W	1M	1Y	YTD
지수	코스피	5,953.3	7,493.2						(0.1%)	23.0%	185.9%	77.8%
	KRX은행	199.5	1,539.0						(4.4%)	(5.8%)	64.1%	18.0%
	KRX증권	98.3	2,815.3						(10.5%)	(1.4%)	192.9%	84.0%
	KRX보험	115.7	3,658.8						5.5%	10.1%	99.2%	36.7%
	결제 지수**	1.478	n/a						(3.9%)	(3.8%)	60.6%	12.6%
은행	KB금융	58.0	155,600	57.1	0.9	11.4	8.5	12.9	(3.8%)	(1.6%)	66.2%	24.8%
	신한지주	45.1	95,100	53.6	0.8	10.4	8.1	15.5	(3.0%)	(4.7%)	83.9%	23.7%
	하나금융지주	32.6	119,000	50.8	0.8	10.6	7.4	12.3	(5.9%)	(1.7%)	81.1%	26.5%
	우리금융지주	22.9	31,250	44.5	0.7	10.6	6.5	12.1	(4.9%)	(11.6%)	73.0%	11.6%
	기업은행	16.7	20,900	36.0	0.5	8.5	6.4	2.2	(4.1%)	(6.9%)	35.1%	(0.2%)
	BNK금융지주	5.4	17,320	45.1	0.5	8.3	6.1	9.5	(3.2%)	(8.3%)	65.3%	9.1%
	JB금융지주	4.7	24,950	42.2	0.5	9.5	5.4	21.9	(4.2%)	(18.9%)	39.2%	(2.7%)
	iM금융지주	2.9	18,150	51.8	0.8	13.2	6.2	6.6	(5.0%)	(0.6%)	72.4%	16.7%
	카카오뱅크	10.7	22,450	50.0	1.5	8.8	17.3	29.1	(5.1%)	(12.0%)	(3.0%)	3.9%
증권	미래에셋증권	39.1	69,900	60.9	2.7	12.9	22.0	17.5	(12.2%)	0.3%	449.7%	200.7%
	NH투자증권	11.6	32,550	41.1	1.4	12.9	11.2	14.9	(11.1%)	(7.9%)	103.6%	54.3%
	한국금융지주	14.4	258,000	25.0	1.2	14.2	9.7	-19.1	(3.9%)	1.2%	175.9%	59.6%
	키움증권	10.4	396,000	29.5	1.6	20.7	9.0	26.4	(12.5%)	(15.0%)	169.4%	36.8%
보험	메리츠금융지주	17.7	105,800	50.0	1.7	22.8	8.2	14.9	(5.9%)	(9.8%)	(7.1%)	(6.5%)
	삼성화재	24.7	554,000	45.1	1.0	10.1	10.9	12.0	11.0%	14.0%	49.7%	11.5%
	삼성생명	62.0	310,000	46.3	0.6	3.7	15.9	17.8	5.1%	20.2%	271.3%	96.7%
	DB손해보험	10.8	164,500	32.3	1.1	16.6	6.6	9.0	(0.1%)	(0.2%)	69.1%	25.5%
	한화생명	4.7	5,390	16.4	0.3	5.6	6.3	37.8	12.3%	10.3%	104.2%	65.6%
	현대해상	2.8	33,350	11.7	0.5	17.5	3.3	18.3	7.4%	10.8%	48.6%	8.3%
결제	카카오페이	6.9	51,100	n/a	n/a	6.9	54.5	180.2	(10.4%)	(6.1%)	71.8%	4.1%
	NHN KCP	0.7	17,940	n/a	n/a	17.9	12.3	28.8	(4.3%)	(6.9%)	131.2%	20.3%
	KG이니시스	0.3	10,470	n/a	n/a	7.1	5.1	9.9	(5.8%)	(5.8%)	17.4%	2.4%
	KG모빌리언스	0.2	4,625	n/a	n/a	10.3	5.3	12.1	(7.0%)	(13.1%)	5.8%	(1.6%)
	나이스정보통신	0.3	29,350	n/a	n/a	9.1	5.2	39.4	1.6%	15.6%	48.8%	15.8%

참고: 5/15 종가 기준
* 당사 커버리지하 기업 시가총액 합산 기준 (카카오페이 제외 기준)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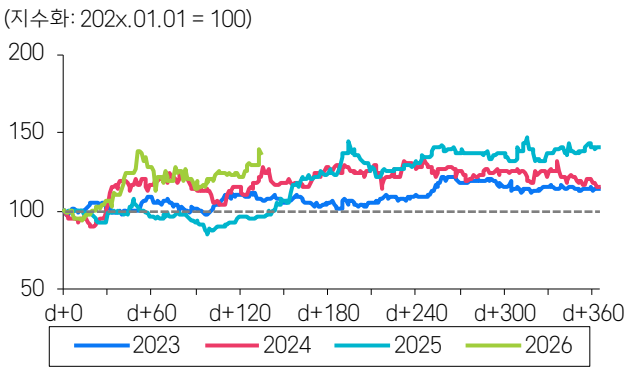
1.4 주가추이 - At a glance

은행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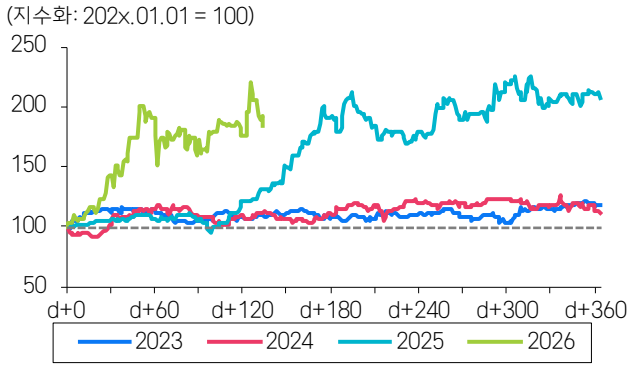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보험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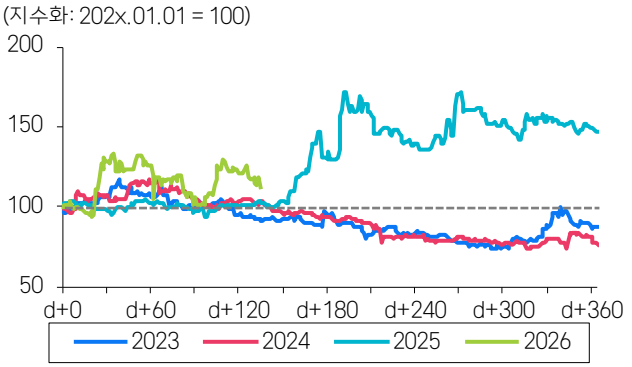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증권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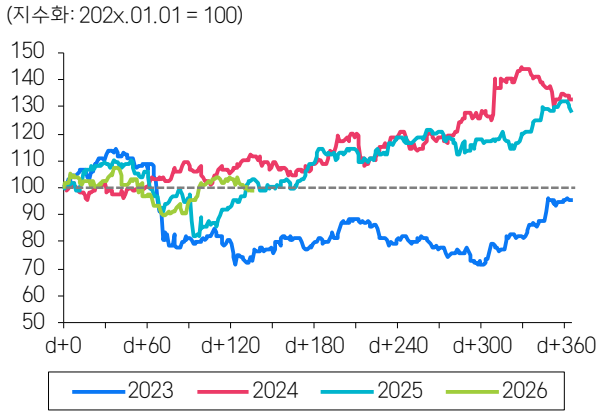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결제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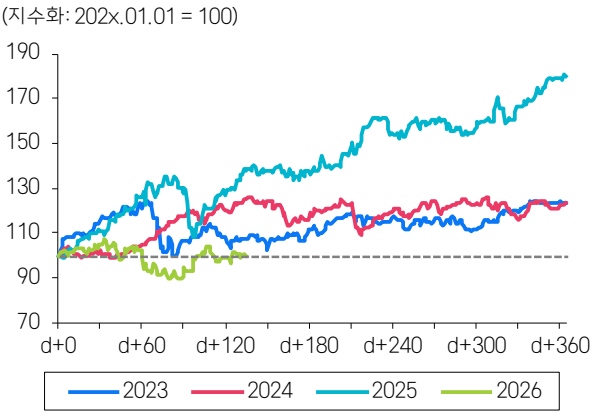
참고: 당사 커버리지하 기업 시가총액 합산 기준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미국 은행 업종 지수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유럽 은행 업종 지수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1.5 해외 Peer 점검

Sector	지역	종목	시가총액 (USDb)	26E Valuation					주가 Performance			
				주주 환원율 (%)	PBR (배)	ROE (%)	PER (배)	EPS growth (%)	1W (%)	1M (%)	1Y (%)	YTD (%)
은행	미국	JP Morgan	798.0	80.2	2.2	17.1	13.3	11.5	(1.4)	(4.0)	11.3	(7.6)
		Bank of America	353.2	103.1	1.2	11.7	11.1	17.5	(3.0)	(7.7)	11.4	(9.5)
		Citigroup	210.5	117.2	1.0	9.7	11.4	54.9	(1.7)	(6.6)	63.0	5.8
		Wells Fargo	224.7	96.5	1.3	12.8	10.5	11.2	(2.9)	(9.8)	(3.6)	(21.2)
		PNC Financial	85.5	75.5	1.4	12.7	11.6	10.8	(1.8)	(5.3)	18.6	2.0
	유럽	Banco Santander	173.8	63.9	1.4	13.7	9.5	11.4	(2.7)	(7.8)	47.3	1.1
		Unicredit	124.9	82.1	1.6	16.9	9.4	8.1	1.1	(0.8)	26.2	0.5
		BBVA	123.6	86.1	1.8	18.8	9.2	16.0	(0.3)	(7.1)	40.9	(5.9)
		ING Group	86.1	80.9	1.4	13.4	10.6	10.8	(0.7)	2.8	34.8	6.4
		Lloyds	73.0	83.0	1.2	13.7	10.2	44.6	(5.0)	(10.5)	25.4	(4.3)
		Barclays	76.7	66.4	0.9	10.7	9.1	19.6	(2.7)	(6.5)	30.0	(11.1)
	일본	Mitsubishi UFJ FG	218.9	59.7	1.5	11.5	13.3	3.6	4.4	2.1	50.4	17.5
		Sumitomo Mitsui FG	137.4	53.9	1.3	11.2	12.2	13.3	2.8	1.9	64.8	13.1
		Mizuho FG	106.3	29.6*	1.4	11.7	12.6	9.2	2.1	2.1	87.3	21.3
	중국	Industrial Commercial Bank of China	362.9	30.2*	0.6	9.1	6.6	3.6	(0.4)	(2.0)	23.3	9.5
		China Construction Bank	300.1	29.8*	0.6	9.5	6.6	1.6	0.2	1.2	26.9	14.2
		Agricultural Bank of China	336.5	N/A	0.7	9.7	7.4	6.2	2.7	0.8	20.8	5.5
보험	미국	Berkshire Hathaway	1,041.0	N/A	1.4	5.9	22.5	(31.0)	0.9	1.7	(6.1)	(4.1)
		AIG	40.4	79.1	1.0	11.1	10.4	흑전	(0.3)	(3.3)	(9.7)	(11.0)
		Travelers Insurance	63.7	83.5	1.8	18.6	10.6	3.0	0.6	(0.3)	9.5	3.3
	유럽	Allianz	165.6	81.0	2.2	18.5	12.3	9.9	1.5	(4.0)	6.6	(4.1)
		AXA	95.2	59.6*	1.7	16.2	9.4	(8.4)	(4.5)	(8.1)	(5.0)	(4.3)
		Generalli	68.9	59*	1.7	14.0	12.6	10.9	(0.8)	3.0	10.8	8.1
	일본	Tokio Marine	92.2	40.1*	2.7	19.9	14.2	(2.0)	7.7	9.2	27.9	30.1
		Daiichi Life Insurance	36.9	58.9	1.5	11.9	12.8	5.3	12.5	10.9	55.2	24.1
	중국	Ping An Insurance	146.2	36.2*	1.0	13.7	7.7	5.5	(4.8)	3.1	35.5	(4.1)
		China Life Insurance	136.5	20.1*	1.3	19.4	6.5	(16.3)	(4.4)	7.7	90.3	9.1
		PICC P&C Insurance	43.5	38.2*	1.1	13.4	8.4	0.6	3.0	6.3	2.1	(6.3)
증권	미국	Goldman Sachs	290.8	107.5	2.5	16.4	16.0	15.7	1.3	2.4	53.2	7.9
		Morgan Stanley	303.6	73.0	2.8	17.7	16.2	16.4	(0.3)	2.0	45.6	8.4
		Charles Schwab	162.7	99.2	3.4	23.5	15.3	27.7	2.6	(1.5)	2.5	(9.0)
		Robinhood	69.5	41.2	6.6	18.6	39.9	(5.6)	0.1	(15.0)	24.9	(31.8)
카드	미국	American Express	213.9	N/A	6.1	35.2	17.7	14.8	(0.8)	(5.5)	4.6	(15.3)
결제	미국	VISA	628.8	N/A	18.2	66.0	25.5	25.4	2.2	2.8	(10.8)	(7.1)
		MasterCard	436.8	17.9*	50.5	224.5	25.5	17.5	(0.3)	(5.2)	(15.3)	(13.4)
		PayPal	39.2	5.5*	1.9	23.5	8.7	(6.1)	(2.1)	(12.6)	(38.5)	(23.9)
	유럽	Adyen	32.7	N/A	4.3	21.3	22.5	17.5	(5.5)	(9.6)	(45.6)	(35.2)
핀테크	미국	Block	41.9	N/A	1.8	10.1	31.8	5.5	(6.0)	(1.3)	22.0	8.1
		Upstart	2.8	0*	3.5	19.1	33.0	98.8	1.9	(14.6)	(38.6)	(32.5)
		Affirm	22.1	0*	5.2	11.6	53.0	728.3	2.8	2.0	25.2	(11.6)
	중국	LuFax	1.6	N/A	0.0	(0.1)	N/A	흑전	(4.1)	(1.1)	(38.1)	(27.0)

참고: Bloomberg 컨센서스 기준, 5/15 종가 기준
* 현금 배당성향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